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피난처 있으니(찬70/새7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안경수 집사 2부/안지호 집사 3부/왕동원 장로 4부/김지운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정유성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10:1-11:11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35-51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11) 비를 내리실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4): 와서 보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주께 가오니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한 해를 마무리 하며

As the Year Comes to a Clos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항상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지난주 성탄 인사를 하신다며 80 넘으신 성도님 내외분이 제 방을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건강할 때와 달리 점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매일 체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요즘은 주위 이웃들이 점점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보행기를 사용해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실버타운을 오가며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자기네를 부럽게 보는 시선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냐고요. 두 분은 주저 없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건강과 가족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웃을 도우며 신앙생활에 더 정진하고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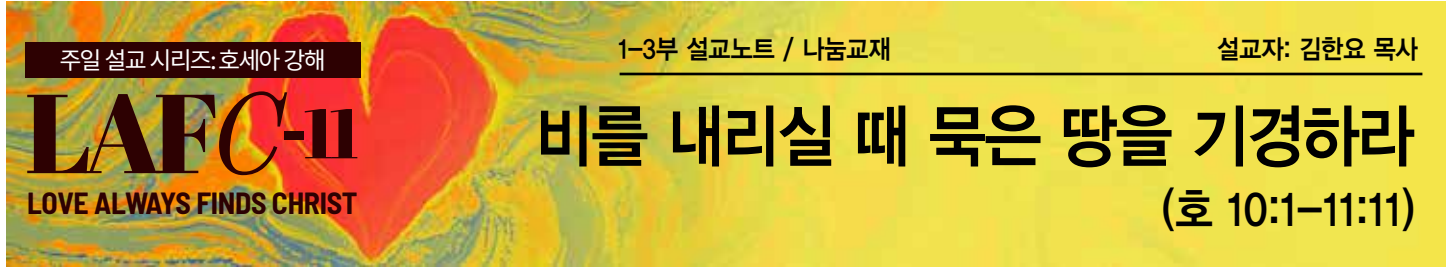
어느새 60 중반의 나이에 들어선 저도 어쩌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저보다 5년, 10년, 20년을 먼저 살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앞으로도 쪽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마지막 주일예배를 주셔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나 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성하며,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달리할 수 있을지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며칠 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round this time, we tend to look back on the year. We begin to take count on how we lived the year that God has given us. Time is given fairly to everyone. We reflect to see if we have wasted that time. Last Sunday, a couple in their 80's stopped by my office to wish Merry Christmas. We conversed about this and that. They said that as they get older, unlike when they were young and healthy, they are experiencing more things that they cannot do. In the old days, walking on two feet was natural. But now they see more neighbors using canes and wheelchairs. They still walk on their two feet. They feel others who are less free to move about see them with envy in their silver town. So, I asked them a question. What's in your heart these days as you live day to day? Without hesitation, they both said that they want to use their time wisely. Also, they want to live a meaningful life without waste when they have the health and family, be helpful to neighbors, be fervent in the life of faith, and live a life that benefit others.

I am in mid 60's. Perhaps I may have lived thinking that all things are obvious. When I look around, I observe people who are 5 years, 10 years, and 20 years over me. I may be mistakenly thinking that I will continue to live without problems. That is why, perhaps, God gives us the last Lord's Day worship each year for us to receive wisdom to take count of our time.

Today, we need to look back on this year and see what we lived for. We need to reflect and think carefully about what we need to do differently if we had to do it again. Then, we must return to God. We need to return to being God-centered and not self-centered. We need to repent our actions that were right in our own eyes and return to life with God. And we need to receive strength that comes from love of God who makes all things possible. We already know very well how frail our determination and resolve are. In a few days, it will be New Year. Our only hope is to hold on to the love of God who has not abandoned us and still holds onto us. Strengthened by that love, may this last Lord's Day of the year end on a high note for all of us.



1.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리해 봅시다.

- 1) 두 마음(2절)
- 2) 밭이랑에 돋는 독초(4절)
- 3) 물위에 있는 거품(7-8절)
- 4) 소환된 기브아 사건(9절)
- 5) 곡식 밟는 암소(11절)

2.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12절)

3.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의미를 참고구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12절, 참고/창 19:24, 시 11:6)

4. 11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편에서 부모로 변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11:1-4)

5.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멀하지 않는 이유를 11장 9절을 읽고 설명해 보십시오.

6.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본문과 참고구절을 읽고 정의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11:1, 참고/마2:15, 11:10-11)

적용하기



■ 적용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주께 가오니

선교 후기

순종으로 시작된 선교



2025년의 선교 사역은 선교담당 목사님의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선교소위를 맡아 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3년 전 늦은 밤 받았던 또 다른 전화 한 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역 장래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도 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후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장로로 섬기기 시작한 첫 해에는 단기선교 팀장을 맡아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교회 안에서

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헌신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은 삶의 자리와 성취를 내려놓고, 낮은 땅과 언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였고, 그 기쁨 앞에서 제가 "섬겼다"고 말해왔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한 사명이 되었고, 그 마음으로 2025년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선교소위는 이름 없이 묵묵히 섬겨오신

팀장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접 선교 현장을 경험하셨고, 'Mission 1.8'의 사명을 삶으로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사역하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만 그 과정이 질서 있고 온전히 진행되도록 돕는 수고 또한 얼마나 중요하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수고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소위는 선교뉴스, 선교교육, 선교이벤트, 선교물품, 선교미디어, 선교행정의 여섯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교담당 목사님의 지도 아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력을 통해 올해 17개 단기선교팀이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오직 감사뿐입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과 현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황세헌 장로

사역 후기
베델 카페

커피향에 사랑을 더한 시간

카페의 표어는 'Mission 1.8'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카페의 모든 이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사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카페 사역은 안수 집사님 두 분을 중심으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약 20여 명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 5시부터 커피 드립으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여, 오후 2시 이후 설거지와 청소로 마무리합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내어 섬겨주시는 분들, 매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헌신해 주시는 분들,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에서 나와 동참해 주시는 형제자매들까지-이 모든 동역자들의 헌신

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부서에 팀장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두려운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카페에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인원이 함께 봉사하지 못하는 점은 늘 송구한 마음으로 남습니다. 주일의 주된 메뉴는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김밥과 삼각김밥, 무수비, 그리고 카페에서 준비하는 차고 따뜻한 커피, 녹차, 코코아, 오희 음료입니다. 예배 후 성도님들께서 물리는 시간에도 긴 줄 앞에서 불평 없이 기다려 주시고, 음료가 늦거나 주문과 달라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제 마음에는 더 큰 죄송함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섬

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니다.

새해에는 'Jesus Alone'으로 무장한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Come and See'를 외치며 VIP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광영 장로



사역 후기
사역 팀장

기쁨으로 섬긴 2025!!



먼저 주일 3부예배를 섬기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며, 1년 동안 함께 섬긴 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인사로 시작하며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은 큰 보람이었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의 기쁨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알아가는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팀원들과 점심을 같이하며 정이 들었는데,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헤어지게 되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벌써 기대가 됩니다.

김재훈 장로(주일예배 3부)



새해를 여는 엘새로 시작된 주차 사역은 적은 인원으로 쉽지 않게 출발했지만, 때마다 채워 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와 동역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차 사무실 옆 파라솔과 테이블은 안내 데스크를 넘어 성도들과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고, 주일 새벽 사역자와 성도들의 설레는 발걸음 속에서 이 사역은 제게 천국의 프리뷰가 되어 힘든 수고는 기쁨으로 바뀌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주흥 집사(주차)



한 해 동안 셀목자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었던 시간은 기쁨이자 감사였습니다. 셀목자님들의 헌신과 셀가족들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셀모임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학남 집사(셀사역)

It has been a blessed year for me to serve at Friday night kitchen ministry. God provided lovely volunteers every Friday



that worked happily to prepare and serve tasty meals to more than 200 children from Awana, CIM, BYM and Yesalm.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witness the love of Jesus Christ shown by each volunteer and a living testimony of the strength of our Bethel Church congregation.

박성남 장로(금다식)



성례 사역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준비하는 때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분병과 분잔을 준비하는 성찬식 준비 팀원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며 성찬의 자리가 더욱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또한 성도들 앞에서 소중한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유아세례를 통해 한 가정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고백임을 느꼈습니다. 어린 생명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 준비하는 2세들의 교육과 인터뷰 과정을 보며 주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성례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봉사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박세환 장로(성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교회 마당을 힘차게 밟고 오시는 MIT 학생들의 배움과 교제의 시간들이 모여 또 한 페이지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협력하며 전심으로 도우신 섬김이들과의 시간은 '행복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위커를 밀고 지

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달려오시며 임마누엘 어르신들이 잡아 주시는 따뜻한 손은 도리어 저희에게 위로였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눈빛을, 주머니에 넣어 주신 커피 사탕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강오 장로(MIT)



주일 첫 예배인 1부예배는 소중한 기다림과 설레는 시간이었고, 어떤 방해도 없이, 어떠한 약속이나 일정보다 먼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주님께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년간 베델교회 성도로 알게 된 믿음의 선배님들,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1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정갈한 마음가짐과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난 1년간 봉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1부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양수 집사(주일예배 1부)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2부예배를 섬기며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부예배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특히 위커나 부축

이 필요함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오시는 모습에 감사와, 이분들이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습니다. 각자의 일로 피곤할 수 있는 주일 아침, 환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선 장로(주일예배 2부)

성례
유아 세례

복의 근원 소중한 축복이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해주시며,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품 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 유민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오성민/박유진



12년 이상 자녀 없이 고요하던 저희 집에 첫째 엘리와 둘째 해나라는 소중한 축복들을 허락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 부부의 만복을 위함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유아세례를

신청하였습니다. 김한요 목사님께서 유아세례를 주실 때 항상 하시는 기도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 선생님, 목회자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함께 주님의 가기를 소망하며 참된 축복은 세상이 주는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의지하며 배우는 삶임을 알려주며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유형석/유원정 집사



산부인과에서 난임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아이를 허락 하셨습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때 저희 부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제자반과 화요일림 모임이었습니다. 말씀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지체들의 중보가 저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원우는 저희 소유

가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원우의 이름 뜻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복을 누리고 또 주위에 흘려보내는 인생되길 원합니다.

이근제/이제영 집사



올해 12살이 된 첫째 딸이 몇년 전 동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밤 기도하기를 몇년,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째 딸의 기도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기뻐하는 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수빈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이현동/곽소이 집사

사역 후기
베델뉴스팀

52주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실낱같은 가지지만 베델뉴스팀의 가나다라 가지로 섬길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베델뉴스팀 지체들과 소중한 고백의 글들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강은혜 집사

각양 색깔의 간증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쁨, 때론 아름다운 글들에 먼저 은혜받는 특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 강정훈 집사

뉴스팀 기자로 섬기며 공동체 안에 흐르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권두경 집사

여러 사역들과 개인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읽으며 같이 도전받고 격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규현 집사

쉽 없이 달리지만 지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간이 되어준 베델뉴스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

다.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계속 되어질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 김유미 권사

베델뉴스 기자로 여러 사역 소식을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베델뉴스 사역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정원 집사

기꺼이 글을 써주신 교인분들의 한 글자 한 글자 귀함을 다 그대로 전하지 못해 늘 아쉽습니다. 흔쾌히 부탁받고 정성껏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혜성 권사

주보를 만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예배의 무게가 담긴다는 것을요. 그 무게를 함께 나눈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 배민정 집사

한 해 동안 전해진 모든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

립니다. - 안정선 권사

2025년 한 해 처음으로 베델뉴스기자로 섬겼었는데 모든분들이 정성과 성의를 다해 써주시는 모습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을 알게 되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 이소영 권사

은혜로운 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소중한 글을 나눠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혜림 집사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글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과 주보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황수정 집사

구슬을 꿰듯 은혜와 감동 그리고 사랑을 전하려고, 베델 뉴스팀이 호수 밑의 백초처럼 섬김을 다 했던 한 해였습니다. - 김경자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QT: 조태현 목사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온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우 목사
 예식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식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식채플: 이형석 목사
 예식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 정티나 목사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식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희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중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엘리아 특별 새벽 기도회

2026년을 시작하며, 엘리아 특별 새벽기도회가 'Come & See 50' 라는 주제로 1월 2일(금)부터 열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힘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구 분	1/2(금)	1/3(토)
강사	김한요 담임목사	김한요 담임목사
특송	온유/기쁨 목장 신혼부부	그리스 콰이어 (엘새 헌금)
강단 초청	목회자 가정	실행위원, 프로젝트팀장, 직분자(장로, 권사, 안수 집사)
식사 담당	사랑/충성 (떡국)	실행위원회, 신임 장로 (어묵탕)

▶ 일시: 2026년 1월 2일(금)-1월 3일(토)
 1월 5일(월)-1월 10일(토)
 주중 새벽 5시, 토 새벽 6시

▶ 장소: 베델교회 본당

▶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엘새기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구 분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1/10(토)
강사	오명찬 목사	오명찬 목사	윤대혁 목사	윤대혁 목사	이진수 목사	이진수 목사
특송	사랑/충성 목장	은혜 목장	믿음 목장	소망 목장	Joy/화평 목장, 예식	교회학교
강단 초청	셀목자 셀목자 부부	찬양 섬김이 (베델콰이어, 오케스트라, 베델워십, 찬양팀)	교육부 교사, 한국학교, 아기학교	환우	예식 & JM	교회학교
식사 담당	온유, 기쁨 목장, 신혼부부 (소고기무국)	소망 목장 (배추된장국)	Joy/화평 목장, 예식 (황태콩나물국)	은혜 목장 (미역국)	믿음 목장 (소고기무국)	신임 권사 안수 집사 (어묵탕)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월) | 1/4: ①부-이강오 ②부-정광목 ③부-이길수 ④부-박세환
 1/11: ①부-윤주원 ②부-김재훈 ③부-황세헌 ④부-나승호
 1/18: ①부-석승진 ②부-이종선 ③부-박성남 ④부-윤세희

헵시바 토요일예배 대표기도(1월) | 1/3: 엘새 1/10: 엘새 1/17: 김정범 1/24: 엄대석

강단꽃(12,1월) | 12/28: 류재영 1/4: 신옥조, 장석우 1/11: 윤주원, 이미옥 1/18: 김 희, 장다혜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차계향(한외과), 간호사-박수연

다음주 | 의사-최진선(내분비 내과),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배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2026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은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특별한 비전 'Come & See 50'으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베델의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1월 2일(금)-3일(토), 1월 5일(월)-10일(토) 주중 오전 5시, 토 오전 6시
강사: 김한요 목사, 오명찬 목사, 윤대혁 목사, 이진수 목사

◆ 송구영신예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고 뛰었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1, 2부로 각각 드려집니다. 한 해를 보내는 감사, 새해를 맞는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온 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31일(수) 1부-저녁 7시, 2부-저녁 10시 30분, 본당

◆ MY ONE PRAYER 온라인 신청 2026년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로 기도 제목을 적어 넣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수요저녁예배 일정 안내 수요저녁예배는 연말연시(12월 31일-송구영신, 1월 7일-엘리야 새벽기도회)동안 섬을 가지고, 새해 1월 14일(수)에 다시 드려집니다. 새해에도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한 분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리딩지저스 모집 새해를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경읽기 '리딩지저스'(1년 1독)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통독은 1월 5일(월) 부터 시작되며, QR 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월 14일 수요일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김진환 집사 (714)800-3968



◆ 교회 버스 운전면허 교육 클래스 신청 안내 교회 차량팀에서 교회 버스 운전 봉사를 위한 버스 운전 교육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필기시험 준비부터 실기시험 교육까지 교회에서 지원하며, 선착순 15명 모집합니다.
첫 모임: 1월 18일(주일) 오후 1시, 본당 2층 컨퍼런스룸 (신청은 QR 코드)
문의: 심진규 집사 (714)715-6308, 장항령 집사 (818)741-0408



◆ 2026년 봄학기 제30기 베델아기학교 등록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2026년 2월 11일-5월 6일 매주 수요일 1회 총 12주 과정(4월 1일 부활절 휴강)
정원/등록비: 정규반-강종이반(15-48개월) \$300, 36명 선착순
추가반-뽀뽀이반(30-48개월) \$200, 6명 선착순, 프리스쿨 준비반으로 수요 정규반 등록 학생만 가능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현승원 집사 (701)212-551



◆ 의료 진로 패널 GMM(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Health Panel 의료·헬스케어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참석 가능하며,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QR 코드로 신청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월 3일(토) 오전 9-12시, Bethel Grace Chapel



◆ 소망 오케스트라 악기 도네이션 소망 오케스트라에서 사역에 사용될 바이올린(3/4, Full 사이즈) 및 첼로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최 신 권사 (949)331-5169

◆ QTin 1월호 판매 2026년 1월 월간 국/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새해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1월 10일(토)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 구독 할인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qtin.org)
문의: 김연조 집사 (714)333-6724

◆ 2026년 강단꽃 봉헌 2026년도에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달력 2026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예배 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 동정 이정연 전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31일부로 사임합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남선경 집사님(Dan Nam 목사의 모친, Helen Nam 사모의 시모)께서 12월 22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 & Training, church services, and news board membe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Today's passage continues to show Israel's spiritual corruption. Think about our own spiritual corruption and summarize.
 - 1) Deceitful heart (v.2)
 - 2) Poisonous weeds in a plowed field (v.4)
 - 3) Float away like a twi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v.7-8)
 - 4) Incident of Gibeah (v.9)
 - 5) Threshing heifer (v.11)
2. What is God's prescription? (V.12)
3.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think about the meaning of showers of righteousness. (V.12, Ref: Ge 19:24, Ps 11:6)
4. In chapter 11, God's image changes from a husband to a parent. Please explain. (11:1-4)
5. Read 11:9 and explain the reason why God does not bring wrath on Israel.
6. When do you hear God? Read today's passage and the reference verses and share your experience when rain of righteousness became rain of grace. (11:1, Ref: Mat 2:15, 11:10-11)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Hymn 404), The Power of Your Love